

23일 Market Index			
↓ 코스피	5405.75	↓ 코스닥	1096.89
	(-375.45)		(-64.63)
↑ 금리 (국고채 3년)	3.617	↑ 환율 (원·달러)	1514.25
	(+0.207)		(+13.65)

산업부
“UAE원유·비축유 방출
원유수급 문제없어”
02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02)721-9841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뉴메트로 10주년 대한민국 희망을 찾아서

2026년 3월 24일 화요일

고·고 여파, LCC 직격 노선 중단·감편 ‘비상’

업계 전반 긴축경영 확산

이란전쟁이 촉발한 고유가·고환율 여파가 항공업계를 직격하고 있다. 특히 저비용항공사들이 곧바로 영향을 받아 티웨이항공이 전사 비상경영에 돌입한 데 이어 에어부산·에어로케이·에어프레미아까지 국제선 운항 조정에서부터 긴축 경영 기조가 확산되는 모습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에어부산은 지난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4월 국제선 일부 노선 비운항 계획을 공지했다.

업계, 내달 발권 유류할증료 인상
에어부산 내달 다낭·세부·괌 노선
수·목요일 중심 왕복편 14회 감편
에어로케이 4개 국제노선 비운항
티웨이 전사 ‘비상경영 체제’ 돌입

대상은 부산발 다낭·세부·괌 노선이다. 부산~다낭 노선(BX7315·7325)은 4월 21일·24일·28일 운항이 중단되며 27일 일부 운항편도 조정된다. 부산~세부 노선(BX711·712)은 27~28일 이틀간 운항이 중단된다. 부산~괌 노선(BX614·613)은 4월 8일과 30일을 포함해 수·목요일 중심으로 총 14회 왕복편이 감편된다.

청주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에어로케이도 4~6월 청주발 클락·울란바토르 등 국제선 4개 노선에 대한 일부 비운항 계획을 안내했다.

앞서 티웨이항공은 지난 16일 전사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재무 건전성과 유동성 확보를 위해 비용 구조와

투자 계획을 전면 재점검하고, 불요불급한 지출과 투자는 조정·보류하기로 했다. 에어프레미아도 운항 조정을 검토 중이다. 업계에 따르면 탑승률이 낮은 노선을 중심으로 비운항을 포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시행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업계는 유가·환율 급등에 따른 원가 부담 확대로 감편과 비상경영이 불가피한 것으로 본다. 항공사들은 리스료·유류비·보험료 등 전체 비용의 70~80%를 달러로 결제하는 데다, 항공 연료비도 통상 전체 비용의 20~30%를 차지한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7~13일) 세계 평균 항공유 가격은 갤런당 416.67센트로 전달 평균 대비 82.8% 급등했고, 같은 기간 원·달러 환율도 1424.5원에서 1499.7원으로 상승했다.

이에 항공사들은 오는 4월 발권 항공권의 유류할증료를 일제히 인상했다. 에어로케이는 기존 1만6600원~3만4600원에서 4만3700원~9만원으로, 티웨이항공은 1만300원~6만7600원에서 3만800원~21만3900원으로 올랐다. 제주항공·이스타항공·진에어도 기존보다 3배 이상 인상했다. 다만 공급 과잉과 가격 경쟁으로 비용 상승분을 운임에 충분히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재무 여력도 넉넉하지 않다. 지난해 말 기준 부채비율은 티웨이항공이 300%를 웃돌고, 에어부산과 제주항공은 800% 안팎, 진에어는 400% 초반 수준이다. 대형항공사(FSC)보다 유가·환율 대응 수단이 제한적인 점도 부담이다.

업계에서는 정부 지원 필요성마저 거론한다. 일부 LCC들은 항공유 가격 급등 대응책으로 비축유 활용 등을 국토교통부와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아직 구체화한 지원책은 없으며, 정부는 업계 지원보다 소비자 부담 완화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라는 평가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불가피하게 4월 기간 중 일부 노선 감편 운항을 시행하게 됐다”며 “여정 변경 및 환불 등 고객 안내를 진행하고 있으며, 고객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에어부산 항공기. /에어부산

메트로신문 2026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

오늘 오후 2시~5시,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컨벤션홀) <관련기사 L8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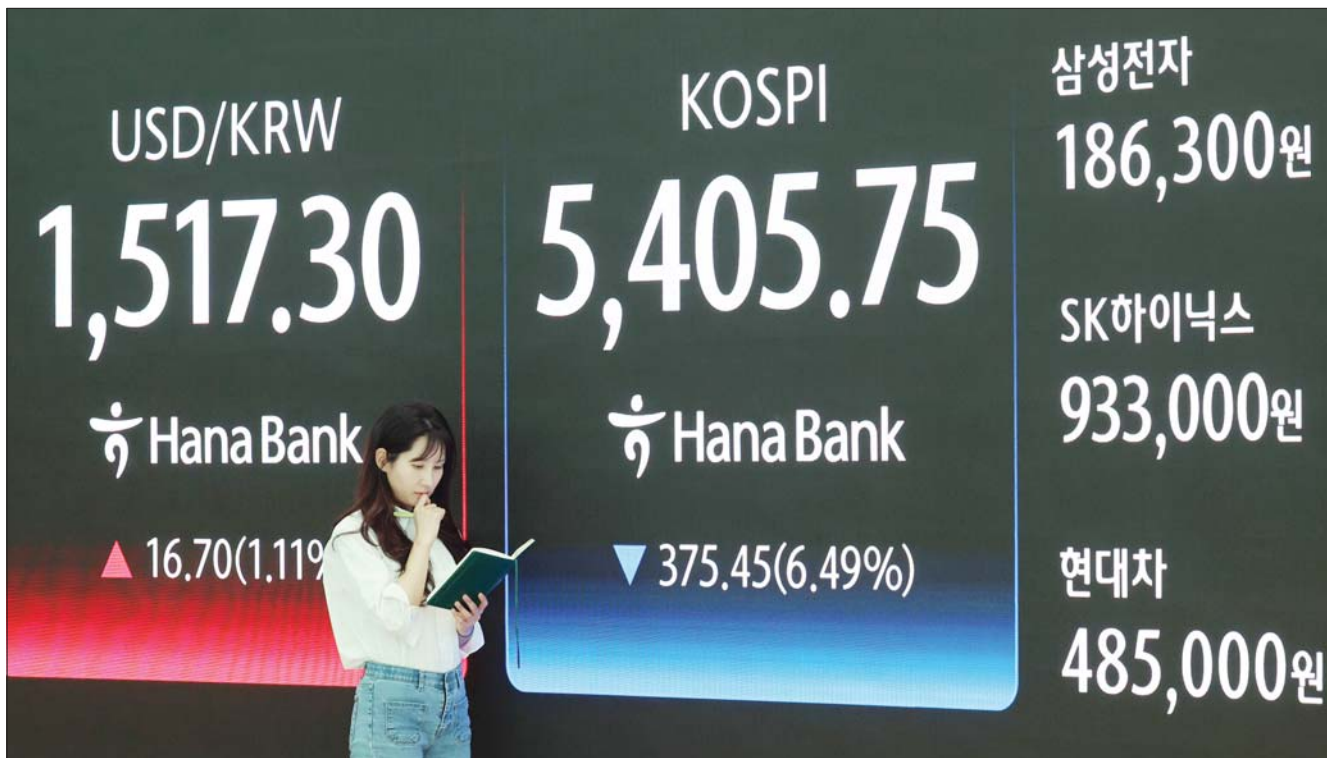
메트로 한줄뉴스



▲이정현 공관위원장 “국힘 생존 갈림길…특정인 겨냥한 공천 안 해” /사진 뉴시스
▲홍준표 “주호영, 6선다운 태도 보여야…비명학 살 못 봤나”

▲윤택근 부산시장 예비후보 사퇴…피선거권 상실
▲김 총리, 뉴욕증권거래소 부회장 접견…자본시장 국제협력 강화

▲황중우 해수부 장관 후보자 “국가필수선박 동원해 에너지 수송”
▲정청래, 노무현 묘역 찾아 “노짱님, 검찰개혁 보고드린다”…권양숙 여사도 예방



코스피 중동 전쟁 확산 공포에 5400선까지 하락한 2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5781.20)보다 375.45포인트(6.49%) 내린 5405.75에,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1161.52)보다 64.63포인트(5.56%) 하락한 1096.89에 거래를 마쳤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500.6원)보다 16.7원 오른 1517.3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뉴시스

환율 1517원… 2026 증시 ‘블랙 먼데이’

코스피 6.49% 하락 5405.75 마감
주가 급락에 한때 ‘매도 사이드카’
삼전 6.57%, 하이닉스 7.35% 하락

중동 전쟁 확산 공포가 고조되면서 아시아 증시가 ‘블랙 먼데이(검은 월요일)’를 맞았다. 국제 유가가 100달러대에서 고착화될 우려가 커지면서 원화 환율은 17년 만에 달러당 1517원 선을 넘겼다.

23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6.49% 하락한 5405.75로 마감했다. 오전 9시경 매도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매 호가 일시 효력 정지)가 발동됐다. 올해들어 6번째다. 일본 닛케이평균(-3.48%), 대

만 가권지수(-2.45%)를 비롯해 중국 상하이종합지수, 홍콩恒生지수 등 아시아 증시도 동반 하락했다. 아시아 경제는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중동지역 확산으로 유가가 오르면 기업 이익과 경제에 직접적인 충격을 받기 쉽다.

〈관련기사 3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일제히 급락했다. 지난주 각각 20만원, 100만원을 웃돌던 삼성전자는 18만6300원(-6.57%), SK하이닉스는 93만3000원(-7.35%)에 마감했다.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를 차지하는 에너지 대동맥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쿠웨이트·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산

유국들이 감산에 나서면서 유가는 급등하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국제유가 기준인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한국시간 23일 오전 7시 전장 종가보다 1.9% 오른 배럴당 114.35달러까지 뛰었다.

환율도 연일 치솟는 양상이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 주식 7조500억 원 가량 팔아 치운 영향으로 16.7원 급등한 1517.3원에 주간(오후 3시 30분) 거래를 마쳤다. 환율이 장중 1561원까지 뛰어 올랐던 2009년 3월 10일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신하는 기자 godhe@metro

美 최후 통첩에, 이란 “단호히 맞설 것” 맞불

트럼프 시한, 韓시간 24일 오전 9시경 이란 하르그섬 대규모 군사작전 시사

‘시간이틀 준다’라는 백악관발 최후 통첩에 이란이 맞불을 놓았다. 이에 중동전쟁이 끝내 미 해병 또는 육군의 이란 영토 진입으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최고조로 치달으면서 23일 국내 자본시장 등의 주요 지표가 곤두박질쳤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 X에 게시한 글에서 “우리는 전장에서 광기 어린 위협에 단호히 맞서겠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엄포에 맞섰다.

페제시키안은 “이란을 지도상에서 지워버리겠다는 발상은 역사를 만들어 온 나라(이란)의 의지와는 무관한 절박한 발악이다. 협박·테러는 우리의 결속력만 더 강화할 뿐”이라고 했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자들을 뺀 모두에게 열려 있다”고도 했다.

이 같은 이란의 맞대응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후통첩을 띄운 지 15시간 만에 나왔다. 트럼프는 미동부시간으로 21일 오후 7시44분경(한국시간 22일 오전 8시44분) “이란이 48시간 내에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 개방하지 않을 시 미국은 가장 큰 발전소를 시작으로 이란의 각 발전소를 공격해 초토화하겠

다”고 경고했다.

트럼프가 내건 시한은 23일 오후 7시 44분쯤(한국시간 24일 오전 8시44분)이다. 이번 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하르그섬 등을 표적으로 대규모 군사작전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22일 해상에 묶여 있던 이란산 원유 1억 4000만 배럴의 판매를 재무부가 허용한 것과 관련해, 이는 중국으로 흘러갈 물량을 시장에 풀어 한국·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의 에너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란의 자원을 역이용하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